opusdei.org

4월 18일, 주님 만찬 성 목요일

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,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 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 을 아셨다...

2019-4-17

요한의 복음. 13,1-15

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, 예수님 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 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. 그분께서 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.

만찬 때의 일이다.

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.

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, 또 당신 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,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. 그리고 대야 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 시고,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.

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, "주님,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?" 하고 말하였다. 예수님께서는 "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 게 될 것이다." 하고 대답하셨다.

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"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." 하니, 예수 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. "내가 너 를 씻어 주지 않으면

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."

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. "주님,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."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"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. 너희는 깨끗하다.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."

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.

그래서 "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."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.

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 신 다음,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 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"내 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? 너 희가 나를 '스승님', 또 '주님' 하고 부 르는데,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. 나는 사실 그러하다. 주님이며 스승인 내 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, 너희도 서 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. 내가 너희 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,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."

묵상

친애하는 저의 예수님, 당신께서 사도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.

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당신의 무릎 위에서 신성한 당신의 손으로 그 당시의 유다인 몇 명과 이미 당신을 배신한 두 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실 때...

저는 당신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 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!

종들의 발 앞에 있는 주인,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창조물들 앞에 무릎 꿇 고 계시는 하느님, 부하를 섬기는 상 관... 이것은 마치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를 위해 신발 끈을 묶어주거나 밥을 먹여주거나 옷 입는 것을 도와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?

사랑은 겸손을 불러일으킵니다. '겸 손'은 '사랑'의 딸이고 항상 엄마인 '사랑'과 함께 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

더 사랑하는 삶을 살다보면 더 겸손 해질 수 있습니다.

주님, 저를 위해 베들레헴에 가난한 아기로 오신 당신을 볼 때, 저의 죄를 위해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관상할 때, 당신께서 얼마나 저 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. 빵의 형상으로 계신 당신을 볼 때 명 백하게 이해합니다.

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교황 으로 선출되고 당신의 교황직을 빠른 속도로 시작했습니다.

교황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 한 젊은 사제는 교황님의 비서에게 처음으로 불평했습니다. "이제 제 한계에요! 교황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! 아침식 사를 위해 무엇을 드셨는지 아세요? 어디서 힘을 얻으시는지 아세요 도대체?!" 그때 비서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. 점심식사를 마치고 비서는 교황님과함께 일하는 사제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.

비서는 그 젊은 신부를 교황님의 개인 경당으로 데리고 가서 설명해주었습니다. "교황님께서 아침에 드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(성체) 입니다...그리고 그분의 에너지는 바로 그것에서 나옵니다! 경당으로 들어서자

마자 그들은 성 요한 바오로2세 교황 님께서 감실 앞 땅바닥에 엎드려 기 도에 몰두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 다.

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가르쳐 달라고 우리의 여인이신 성모님에게 청합시다. 여러분은 호세마리아 성인 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드리셨던 신령 성체 기도를 자주 바칠 수 있습니다.

께서 당신을 모셨을 때의 그 정결과 겸손과 신심으로, 그리고 성인들의 정신과 열정으로 당신을 모시고자 합 니다."

"주님, 저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

I pray 번역 원문 : George Boronat 신부

번역 : 정 대영 요셉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4weol-18il-junim-mancan-seongmogyoil/ (2025-12-14)